

글로벌주식팀

김중환 Senior Analyst
joonghan1.kim@sam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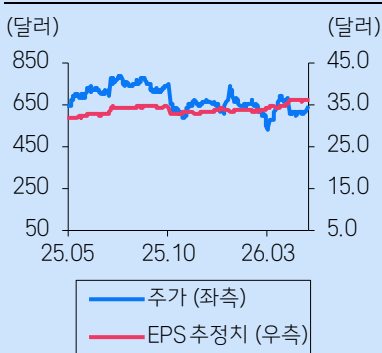
▶ 종목 정보

현재주가	635.3USD
블룸버그 평균목표주가	818.7USD
시가총액 (달러)	1612.5 십억 달러
시가총액 (원)	2423.7 조원
Shares (float)	2194.3 백만주 (99.9%)
52주 최저//최고	520.3/796.3 달러
90일-평균거래대금	9.7 십억 달러
국가	U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Internet
주요 주주	1. Vanguard (9.2%) 2. BlackRock (7.7%) 3. FMR (5.3%)

▶ 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Meta (%)	(5.4)	(2.0)	(1.3)
S&P500 대비 (%pts)	(10.7)	(11.8)	(29.0)

▶ 주가 vs EPS 추정치



자료: Bloomberg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메타 (META US)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 수익화 로드맵이 보이기 시작한다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내 유료 구독 서비스 3종 출시. 파일럿 단계
- 향후 AI 중심으로 구독 모델 재편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화 가시성 확보 전망

WHAT'S THE STORY?

장기 AI 투자 비용 총당을 위해 인력 감축, 리얼리티 사업부 예산 축소 등 슬림화를 추진하던 메타가 신규 매출 및 수익성 확보의 돌파구로 유료 구독 서비스 3종을 출시했다. 기존 광고 중심 수익 구조에서 광고와 구독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전환이다. 단기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이나, AI 플랫폼 전략의 첫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광고 중심 수익 구조에서 탈피: 유료 구독 서비스 3종은 인스타그램 플러스(월 3.99달러), 페이스북 플러스(월 3.99달러), 왓츠앱 플러스(월 2.99달러)로 메타가 보유한 주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제공하는 핵심 기능은 유지한 채 프로필 커스터마이징, 스토리 시간 연장, 커스텀 벨소리 등 유저의 앱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부가적 기능 중심이다. 과거 메타가 유럽에서 출시한 광고 제거형 구독 서비스와 다르게 광고 매출 잠식을 피하며 ARPU(사용자당 평균 매출액)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 보도 이후 메타 주가는 정규장에서 3.7% 상승 마감했다. 물론 해당 메타 구독 서비스는 초기 단계이며, 메타 AI까지 통합된 AI 기반 구독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적 재무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한다.

유사한 유료 SNS 구독 모델로 스냅의 '스냅챗+'가 있다. 스냅챗+ 구독 모델은 광고 제거가 아닌 꾸미기, 스토리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한다. 올해 2월 기준 스냅챗+ 구독자는 2,500만명으로 스냅챗 전체 MAU(9.6억 명)의 약 2.6% 수준이다.

메타의 플랫폼 파워를 고려하면 유료 구독 플랜의 침투율은 스냅챗+보다 높을 것이다. 3% 침투율 기준 메타의 유료 구독 매출은 약 120억 달러다. '26년 매출 컨센서스(Factset) 2,530억 달러 대비 4.7% 수준이다. 총 비용 가이드선스 중간값(1,655억 달러) 기준 영업이익률 개선은 3%p 수준이다. 또한 향후 고가형 플랜 추가에 따른 매출과 이익단 업사이드도 존재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침투율 가정에 따른 유료 구독 서비스 매출 기여도 분석

(단위: 백만 달러)	1.0%	1.5%	2.0%	2.5%	3.0%	비고
인스타그램 플러스	119.7	179.6	239.4	299.3	359.1	MAU 30억 명 x 구독 침투율 x 구독료
페이스북 플러스	122.5	183.7	245.0	306.2	367.5	MAU 30.7억 명 x 구독 침투율 x 구독료
왓츠앱 플러스	89.7	134.6	179.4	224.3	269.1	MAU 30억 명 x 구독 침투율 x 구독료
매출액 기여 증분	3,982.7	5,974.1	7,965.4	9,956.8	11,948.1	월간 구독 매출 x 12개월
연간 매출액 대비 비중(%)	2.0	3.0	4.0	5.0	5.9	2025년 말 매출액 기준

자료: 삼성증권

최종 목표는 AI 기반 구독 플랜 다각화: 최종적으로 구독 모델은 프론티어 모델 기반으로 다각화를 추구할 것이다. 스냅챗+ 구독 플랜도 3개 티어로 제공되고 있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도화된 AI 기능을 제공한다(베이직 월 4.49달러 → Lens+ 월 7.99달러 → 플래티넘 월 13.49달러). 향후 AI 기능 확대에 따라 평균 구독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 내 쇼핑 경험과 결합될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플랫폼 내 유료 구독 서비스뿐 아니라 메타 AI 앱의 유료 구독 서비스 2종도 테스트 중이다(Meta One Plus 월 7.99달러, Meta One Premium 월 19.99달러). 결국 메타의 구독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AI 모델의 성능과 플랫폼 통합성이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 국면 진입: 최근 Muse Spark 출시를 시작으로 AI 중심으로 메타의 플랫폼 전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AI는 기존 플랫폼 고도화를 넘어 신규 플랫폼 출시에도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AI 기능을 통합한 SNS 토론 플랫폼 '포럼'이다.

또한, 메타는 자체 AI 인프라의 외부 클라우드 판매라는 대안도 존재한다. 이는 자체 AI 비즈니스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투자비 부담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하방 지지 요인이다. 메타의 현재 12개월 Forward P/E(Bloomberg)는 17.5배로 평균(21배)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밸류에이션 저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익화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메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메타 신규 유료 구독 모델 7종 표

제품명	상태	월 구독료	대상	추가 기능
Instagram Plus	글로벌 출시	3.99달러	인스타 헤비유저	스토리 재시청 수 확인, 스토리 대상 리스트 확대, 스토리 노출/유지시간 강화 등 스토리 운영 기능 중심
Facebook Plus	글로벌 출시	3.99달러	페이스북 이용자	스토리 유지시간 확대, 재시청 수 확인, 익명 스토리 미리보기 등 Facebook 내 스토리 운영 기능 중심
WhatsApp Plus	글로벌 출시	2.99달러	왓츠앱 헤비유저	앱 테마, 맞춤 벨소리, 프리미엄 스티커 등 채팅 환경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 중심
Meta One Plus	테스트 예정	7.99달러	Meta AI 일반 유료 사용자	Meta AI의 이미지, 비디오 생성과 고급 AI 기능 사용량을 늘려주는 기본 유료 플랜
Meta One Premium	테스트 예정	19.99달러	Meta AI 고사용량 사용자	Meta One Plus와 같은 기본 AI 기능을 제공하되, Thinking mode처럼 컴퓨팅이 많이 드는 요청에 더 큰 용량 제공.
Meta One Essential	테스트 예정	14.99달러	크리에이터/비즈니스	인증 배지, 사칭 방지, 강화 링크시트가 핵심인 기본 크리에이터/비즈니스 플랜
Meta One Advanced	테스트 예정	49.99달러	크리에이터/비즈니스	Essential 기능에 더해 검색, 피드 노출 보조, 릴스 내 팔로우 버튼, 자동 팔로우 초대, Reels 링크 유입 기능을 추가 제공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5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